

합성부터 시작한 우리 화섬산업(7)

3. 시련을 딛고 이룩한 성장

3.1. 세계 5위의 화섬 생산국

한국 경제가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순조롭게 성장해 왔듯이, 화섬섬유 공업도 그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어느 분야에 뒤지지 않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왔다. 최근의 철강, 자동차와 같은 중공업에 비견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80년도 중반까지는 어느 업종에 뒤지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했고, 현재에도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품목은 10-16%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수입된 비스코스 레이온이나 나일론이 호기심의 대상이 되던 시기인 1959년에 처음 일산 2톤의 비닐론 공장이 세워져서 다음해 54톤을 생산함으로써 발을 붙이게 된 화학섬유공업이, 5년만인 63년에는 나일론이 가세하여 함께 429톤을 생산하는데 불과했지만, 그 뒤 10년째인 1973년에는 4대 합섬을 비롯한 모든 품목을 다 갖추고 121,943톤의 생산고를 기록하였으니, 이 숫자는 그 해 면사 생산량 105,426톤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의생활 패턴을 서서히 바꿔갔다. 완전조업으로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해(1973)에 82,456톤의 외국산이 수입되었는데, 증가하는 내수와 함께 수출의 성장은 생산 설비의 신증설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10년 뒤인 1983년 화섬생산량은 5배가 넘는 683,285톤으로 확대되고, 드디어 1988년에는 100만톤을 넘어섰으며, 지난 92년에는 149.9만톤으로 세계 5위의 화섬생산국으로 성장했다. 폴리에스테르사의 경우에는 최대 화섬생산국인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 대만에 다음가는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 3.1).

이러한 성장은 폴리에스테르가 주도하고 있는데 '92년 현재 폴리에스테르

의 점유율은 F가 40.41%, SF가 29.7%로 전 화섬생산의 70% 이르고 있다.

4대합섬 가운데서 가장 뒤늦게 도입 되었으면서도 범용성과 특수성을 함께 갖추고 상대적으로 싼 원료값을 배경으로 고유용도 외에 나일론이 개척한 나일론의 용도분야마저 잠식해가면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소위 신헌섬(新合纖)을 개발하여 이것이 전체 폴리에스테르의 성장을 끌고 가는 것 같은 인상마저 주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크릴이나 나일론과 비슷한 10만 톤대의 생산량이었으나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아크릴과 나일론을 성숙섬유(더 이상 개발여지가 없어 보이는 섬유)로 남겨둔 채 폴리에스테르만이 성장궤도를 쾌주(快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의 화섬공업에서도 그러하다.

면방, 모방과 같은 섬유공업은 지리, 기상 등 자연조건의 제약으로 그 원료가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에 해당하는 이들은 원료의 생산국 해당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수가 없다. 반면에 화학섬유는, 초기에는 석유화학의 미발달로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석유화학의 뒷받침으로 원료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기술과 신소재 신상품 개발력만으로 승부가 가능한, 우리실정에 잘 부합하는 그런 사업부문이다. 그리하여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던 산업이 급성장하여 지금은 수출 없이는 존립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형태로까지 변모하고 있다. 1992년 실적 기준으로 수출비중을 보면 화섬전체로는 수출용 원자재를 포함하여 79.7% 달하며, 수출 비중이 가장 적은 나일론이 54%이고 가장 큰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92.8% 이르고 있다. 섬유나 사 형태로 직수출되는 물량이 절반이 넘는 품목도 아크릴섬유(59.9%), 폴리에스테르섬유(51.6%)의 두품목이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표 3.1 4대합성의 생산추이

(단위 : 톤)

	1963	1968	1973	1978	1983	1988	1992	비 고
화학 섬유 계	488	16,712	121,943	467,781	683,285	1,136,761	1,471,814 (1,499,695)	
아크릴 SF	-	5,744	28,349	126,411	152,304	190,917	187,007	1. ()내 고려나이론 7,471톤 포함 2. ()내 한국합성의 초기 20,410톤 포 함
나일론 F	84	6,031	35,803	98,585	120,293	167,906	233,680 (241,151)	
폴리에스테르 F	-	-	30,951	109,365	215,802	412,194	585,231 (605,641)	
폴리에스테르 SF	-	459	9,351	95,988	171,784	338,235	445,453	
기타	404	4,478	17,489	37,432	23,102	27,509	20,443	
4대합성의점유율(%)								
아크릴 SF	-	34.4	23.2	27.0	22.3	16.8	12.7 (12.5)	
나일론 F	17	36.1	29.4	21.1	17.6	14.8	15.9 (16.1)	
폴리에스테르 F	-	-	25.4	23.4	31.6	36.3	39.8 (40.4)	
폴리에스테르 SF	-	2.7	7.7	20.5	25.1	29.7	30.2 (29.7)	
기타	83	26.8	14.3	8.0	3.4	2.4	1.4 (1.4)	

3.2 수출산업으로의 변신

먼저 60년대를 살펴보면 섬유공업은 우리 나라의 전체산업중에서 그 점하고 있는 비중이나 국민경제상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강력했고, 업계의 노력과 자부심도 대단하여 더욱 빠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화섬공업은 수입에만 의존하던 원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공급한다는 자부심이 강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대체산업(輸入代替産業)에서 수출지원산업내지는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갔다. 단위생산 규모의 영

세성에서 오는 원가고와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취약이라는 문제는 쉽게 풀릴 수가 없는 어려운 과제였으나 조금씩 정부와 함께 풀어나갔다.

순 화섬제품은 물론 천연섬유와의 혼방품으로 새로운 수요가 개발되고 사용비율이 증가하면서 수요 영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수요계층도 확연히 대중화되어 국내수요는 날로 늘어갔다. 사치품시 하던 일부의 시각도 바뀌고 그에 따라 물품세율이 조정됨으로써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수요의 증가를 생산증가가 충족시킬 수 없었으므로 수입은 계속 50,000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에야 비로소 생산이 53,085톤으로 수입(50,807톤)을 앞지르기 시작하는데, 생산이 이렇게 늘어나도 수입물량은 줄어들지를 않았다. 그것은 처음엔 내수용 목적의 수입이었으나, 섬유수출이 확대되면서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이 계속 늘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화섬산업은 수출용 원료(원자재)까지 우리가 생산하는 모습으로 변신해 가게 되었다. 즉 수출용 생산 설비로서 설치 허가를 받고, 금융지원과 함께 관세를 면제받아 도입하여 수출용 원자재로서 생산,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이제까지 양적 증대로만 보던 수출을 수출가득액에 의한 수출내용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데서 연유한다.

즉, 1962년 6,000만 달러에도 미달하던 수출이 68년에 5억 달러, 69년에 7억 달러를 돌파하고 70년에 10억 달러의 수출목표(실적 10억380만 달러)를 설정할 정도로 양적 증가를 이룩하지만, 수출 총액의 80%(62년 22%, 68년 77.3%)를 차지하는 공산품의 수출가득률이 62년의 82.9%에서 66년에 70.1%, 68년에 65.4%, 69년엔 58.8%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 유의하게 된다. 섬유수출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1969년도 총수출 7억 280만 달러의 36.9%인 2억 5,900만 달러가 섬유 수출인데, 그 6할이 넘는 화섬제품의 가득률이 평균수출 가득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합섬직물 28%, 인견직물 15%)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수출증가에 비례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하루빨리 국내생산을 확충시켜야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당국이 지원에 나서게 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근본적인 이유는 외채로 들여온 영세규모의 시설을 로열티를 지불한 기술로 가동시키는데 따른 원가고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화섬생산은 표 3.3에서 보듯이 68년 16,700톤에서 69년엔 2배인 33,400톤, 70년 53,000톤, 71년 74,000톤으로 마침내 73년에는 10만 톤 넘는 121,900톤으로 급성장하는데, 출하를 보면 수출용 출하가, 내수를 40,000톤대에 묶어놓고 앞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1972년부터의 일이다. 수입 물량까지를 합친 총수요에서 수출과 내수를 비교해보면 71년부터 수출용 수요가 74,800톤으로 내수용 51,000톤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73년에는 내수 52,500톤의 약 3배인 151,700톤에 이른다.

표 3.2 화섬 초기의 생산 추이

(단위 : 톤)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비닐 론	SF	53	220	485	404	316	379	324	202	176
	방적사	-	-	-	59	282	377	465	na.	na.
	어망사	-	-	-	-	-	37	80	na.	na.
나일 론	F	-	-	-	84	1,068	1,475	1,730	2,039	6,031
	가공사	-	-	-	589.9	461.9	489.5	1,283.3	na.	na.
폴리에스테르가공사		-	-	-	-	-	-	13	100	268
비스코스 F		-	-	-	-	-	-	87	3,688	4,101
아크릴 S		-	-	-	-	-	-	-	2,236	5,577

(주) 1. 1968년 이후 통계는 표 3.3 화섬 수급추이를 참고

2. 나일론 가공사는 비협회 회원분 포함. '62년 이전과 '67년 이후 미상

3. 비닐론 방적사 및 어망사의 '67년 이후 숫자 미상

표 3.3 화섬 품목별 수급 추이 (1968~73)

(단위 : 톤)

		공		공							수			연말 재고
		계	연초 재고	국내 생산 공급			수				계	수출	내수	
				생산	출하		수입	수출	내수					
화섬총계	1968	69,593	1,811	16,712	16,356	-	16,356	51,069	26,272	24,797	67,425	26,272	41,153	2,168
	1969	84,138	2,168	33,441	33,066	2,128	30,938	48,529	31,657	16,872	81,595	33,785	47,810	2,542
	1970	06,434	2,542	53,085	51,702	11,427	40,275	50,806	38,474	12,332	102,509	49,902	52,607	3,925
	1971	131,650	3,925	74,807	72,970	30,868	42,103	52,918	43,927	8,991	126,698	74,795	51,093	5,730
	1972	156,466	5,730	97,349	98,871	55,809	43,065	53,387	42,417	10,970	152,260	98,225	54,035	4,205
	1973	208,605	4,206	121,943	121,751	75,018	46,733	82,456	76,656	5,800	204,207	151,674	52,533	4,398
아크릴 SF 및 톱	1968	11,566	7,98	5,744	5,215	-	5,215	5,025	2,195	2,830	10,233	2,195	8,044	1,327
	1969	14,586	1,327	10,476	10,564	1,929	8,635	2,783	2,384	399	13,346	4,312	9,034	1,240
	1970	22,156	1,240	15,813	16,486	7,372	9,114	5,103	4,919	184	21,589	12,291	9,298	567
	1971	26,162	567	17,801	16,826	7,715	9,111	7,795	7,748	47	24,648	15,463	9,185	1,541
	1972	33,902	1,541	24,255	24,543	15,057	9,486	8,105	8,105	-	32,648	23,162	9,486	1,254
	1973	49,147	1,254	28,349	28,943	21,879	7,064	19,544	19,535	9	48,487	41,414	7,073	660
나일론 F	1968	21,563	177	6,031	5,850	-	5,850	15,354	11,012	4,342	21,204	11,012	10,192	358
	1969	27,366	358	11,756	11,758	160	11,598	15,251	12,959	2,292	27,010	13,119	13,891	356
	1970	32,793	356	17,428	16,295	2,002	14,293	15,010	14,205	805	31,305	16,207	15,098	1,488
	1971	38,818	1,488	23,963	23,760	9,907	13,853	13,368	13,336	32	37,127	23,243	13,884	1,691
	1972	38,766	1,691	28,523	29,619	15,925	13,694	8,552	8,552	-	38,171	24,477	13,694	595
	1973	51,706	595	35,803	34,560	18,806	15,754	15,308	15,308	-	49,868	34,114	15,754	1,838
폴리 에스테르 F	1968	-	-	-	-	-	-	2,924	1,376	1,548	2,924	1,376	1,548	-
	1969	5,875	-	2,633	2,327	30	2,297	3,242	2,284	958	5,569	2,315	3,254	306
	1970	10,690	306	6,329	5,853	1,344	4,509	4,063	3,747	316	9,916	5,091	4,825	782
	1971	19,350	782	15,914	15,285	10,484	4,801	2,654	2,648	6	17,939	13,132	4,807	1,411
	1972	26,125	1,411	21,019	21,695	15,598	6,097	3,695	3,695	-	25,390	19,293	6,097	735
	1973	40,504	735	30,951	30,818	20,352	10,466	8,818	8,815	3	39,636	29,167	10,469	868
폴리 에스테르 SF	1968	3,984	-	459	187	-	187	3,525	395	3,130	3,712	395	3,317	271
	1969	4,853	271	900	1,040	-	1,040	3,682	2,446	1,237	4,772	2,446	2,276	131
	1970	7,459	131	3,109	2,710	-	2,710	4,219	3,905	314	6,920	3,905	3,024	530
	1971	10,686	530	3,884	3,994	437	3,557	6,272	6,073	199	10,297	6,510	3,757	420
	1972	18,402	420	7,853	7,429	3,971	3,458	10,129	9,623	506	17,558	13,594	3,964	844
	1973	26,129	844	9,351	9,882	5,389	4,493	15,934	15,934	-	25,816	21,323	4,493	313

		공						급			수			요	연말 재고
		계	연초 재고	국내 생산 공급			수			계	수출	내수			
				생산	계	수출	내수	계	수출				내수		
폴리 프로필렌 SF	1968	2,485	-	13	12	-	12	2,472	18	2,454	2,484	18	2,466	1	
	1969	2,598	1	1,005	946	-	946	1,628	44	1,584	2,537	44	2,493	61	
	1970	2,947	61	2,804	2,705	45	2,660	83	72	11	2,788	117	2,671	159	
	1971	4,745	159	4,522	4,315	478	3,837	64	64	-	4,379	542	3,837	366	
	1972	6,242	366	5,876	5,944	1,991	3,953	-	-	-	5,944	1,991	3,953	293	
	1973	6,340	398	6,021	6,175	4,445	1,730	20	20	-	6,195	4,465	1,730	144	
폴리 프로필렌 F	1968	297	-	189	174	-	174	107	9	98	282	9	273	14	
	1969	399	14	303	292	9	283	82	15	67	374	24	350	25	
	1970	536	25	508	467	27	440	4	4	-	470	30	340	67	
	1971	684	67	616	580	10	570	2	2	-	582	12	570	102	
	1972	856	102	754	741	26	715	-	-	-	741	26	715	115	
	1973	1,578	115	1,463	1,428	331	1,097	1	-	1	1,429	331	1,098	150	
PVA SF	1968	191	15	176	147	-	147	-	-	-	147	-	147	44	
	1969	186	44	143	166	-	166	-	-	-	166	-	166	21	
	1970	178	21	157	146	-	146	-	-	-	146	-	146	32	
	1971	32	32	-	-	-	-	-	-	-	-	-	-	-	
	1972	-	-	-	-	-	-	-	-	-	-	-	-	-	
	1973	1,621	-	608	604	414	190	1,013	988	25	1,617	1,402	215	4	
비스 코오스 F	1968	6,740	821	4,101	4,769	-	4,769	1,818	1,388	430	6,587	1,388	5,199	153	
	1969	6,043	153	4,624	4,673	-	4,673	1,267	1,183	84	5,939	1,183	4,756	104	
	1970	6,815	104	5,315	5,256	566	4,689	1,395	1,384	11	6,651	1,951	4,700	164	
	1971	7,998	164	5,809	5,905	1,835	4,070	2,025	1,995	30	7,930	3,830	4,100	63	
	1972	8,421	68	6,479	6,419	3,207	3,212	1,875	1,864	11	8,294	5,071	3,223	127	
	1973	8,731	127	6,035	5,903	3,202	2,701	2,569	2,446	123	8,472	5,648	2,824	259	
아세 테이트 F 및 토우	1968	3,410	-	-	-	-	-	3,411	401	3,010	4,713	401	4,312	-	
	1969	3,889	-	1,602	1,302	-	1,302	2,287	324	1,963	3,590	326	3,264	300	
	1970	3,868	300	1,622	1,784	70	1,714	2,946	824	2,122	4,730	895	3,835	138	
	1971	5,737	38	2,298	2,305	2	2,303	3,300	1,495	1,805	5,605	1,497	4,108	132	
	1972	6,218	132	2,589	2,483	35	2,448	3,497	1,432	2,064	5,979	1,467	4,512	238	
	1973	7,005	238	2,809	2,962	76	2,886	3,958	2,721	1,237	6,920	2,797	4,123	85	

주: 수출은 로칼분 포함

수출용 수요 다시 말해서 수출용 원자재로서의 사용이 이같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까지 간과해 왔던 것들이 점차 심각한 문젯거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교포들의 재산반입조로 들어오던 나일론사의 문제가 해결될 무렵인

67년에는 ‘원양어업 참치 수출에 따른 결손보전책’으로 원양어획물 수출대전의 27.5%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화학 섬유를 링크시켜 면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하여 화섬수급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바 있었고, 또 수출장려 및 보상책의 하나로 섬유류 수출에 대한 링크대상수입을 허용했는데, 그 링크대상품을 단순히 ‘합성섬유의 단섬유’로만 표기해 놓은데다 링크비율마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품목(예컨대,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만을 집중 수입하게 됨으로 당해 품목의 생산을 크게 위축시켰다.

링크 비율이 인하되고(68년 8월) 수출품의 원료와 직접관련이 있는 섬유로 제한되기까지 업계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수출용 원자재로 확보(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물량이 시중에 유출 또는 일시 유용되어 시장을 혼란시키는 일이었다.

이 원자재의 시중 유출을 막기 위해 밀수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개시하고, ‘수출용 원자재 비축분 수입사전승인제 (70.11)’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겨우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 한가지는 원자재로서의 사용량이 10만톤을 넘는 큰 양으로 증가하면서 기술소득(loss)의 양도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것이 유출되어 시장을 어지럽혔다. 당초에 기준소요량(수출품 1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양)을 책정할 때는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생산된 제품의 수출도 대부분 적자이기 일쑤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었다. 이 과다부분은, 기술수준이 좀 높아지거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그만큼 여분이 더 생겨 기업의 소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기술소득’이란 용어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수출제품 생산에 경험이 쌓이면서 실제 소요량은 줄어드는데도 계속 고율의 소요량을 유지함으로써, 내수시장에 유입되는 규모도 수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커져 유통상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70년대 초에 들어와서 전면적으로

로스올이 인하 조정되었다.

표 3.4 주요품목의 기준 소요량

수출품목	원자재명	기준소요량			비교
		증전	70. 12. 28	차	
T/C 직물	면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	1.6154	1.5857(63%)	-0.0297	
		1.2972	1.2764(78%)	-0.0208	
선염직물	화섬 F사	1.2500	1.2121	-0.0378	
후염직물	화섬 F사	1.2195	1.2048	-0.0147	
선염문직물	화섬 F사	1.3158	1.2903(78%)	-0.0255	
후염면직물	화섬 F사	1.2658	1.2422(81%)	-0.0236	
스웨터	아크릴 사, 모사	1.1092	1.1030	-0.0062	
양말류	나일론 F 기타	1.3721	1.3430(74%)	-0.0291	
남성정장 스포츠 셔츠	직물 또는 편직물	1.92yd	1.87yd	-0.05	
아동정장 스포츠 셔츠	직물 또는 편직물	1.41yd	1.37yd	-0.04	
스테레치 나일론 F	나일론 F	1.1240	1.1049(91%)	-0.0191	
신사복 (상)	각종 복지	2yd	1.74yd	-0.26	
신사복 (하)	각종 복지	1.4yd	1.355yd	-0.045	
신사복 (상, 하)	각종 복지	3.4yd	3.095yd	-0.305	
폴리에스테르 크레이프 직물	폴리에스테르 F사	1.3556	1.3312(75%)	-0.034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재류어직물	폴리에스테르 F사	1.4734	1.4257(70%)	-0.0477	
폴리에스테르 재류어 터어시어	폴리에스테르 F사	1.4168	1.3957(72%)	-0.241	

그리고 1971년중에 전면적으로 로스율 조사가 시행되어 제1단계 하향조정이 이루어지고, 72년에 다시 조정되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표 3.5와 같다. 총 324개 품목 가운데 화섬제품 221개 품목과 화섬기초 원료 8개 품목이 들어있다.

표 3.5 품목별 조정 로스율

품종별	품목	로스율			비고
		종전	현행	인하율	
화섬제품	221	15.10	12.30	18.5%	
천연섬유제품	65	17.60	15.30	13.1%	
기타제품	30	15.90	12.80	19.5%	
화섬기초원료	8	27.50	23.60	14.2%	
전체	324	16.60	13.70	17.5%	

표 3.6 화학 섬유 기준소요량

품명	원자재명	1970년		1971년		1972년	
		기준량	로스(%)	기준량	로스(%)	기준량	로스(%)
아크릴 섬유	AN	*1.4112	29.14	1.3962	28.38	1.3531	26.09
나일론 F사	카프롤락탐	1.4419	30.65	1.4266	29.91	1.3826	27.67
폴리에스테르F사	DMT	1.2727	21.43	1.4419	30.65	1.3826	27.67
폴리에스테르SF사	DMT	1.2727	21.43	1.4419	30.65	1.3826	27.67
PPF 사	PP레진	1.2727	21.43	1.2592	20.59	1.2592	20.59
PPSF	PP레진	1.2727	21.43	1.2460	19.74	1.2460	19.74
비스코스 인견사	펄프	1.1953	16.30	1.1715	14.60	1.3293	24.77

아세테이트 인경사	아세테이트 플레이크	1.1953	16.30	1.1707	14.58	1.2707	14.58
-----------	---------------	--------	-------	--------	-------	--------	-------

*는 칩 기준